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이경직·김상엽 역)

워필드 · 부록 1 성경의 신적 기원

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이경직·김상엽 역, CLC) 부록 1, 텍스트판 277-294쪽. 처음 실린 곳은 "The Divine Origin of the Bible"(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82)이다(각주 기준).

🧭 흐름 한눈에

워필드는 먼저 분명히 한다. 신적 기원을 믿는다는 말은 인간 저자를 지우는 말이 아니다. 그는 성경을 중력처럼 세상에 있는 하나의 '사실'로 놓는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설명하려면 어떤 원인이 필요한지를, 전제 없이 귀납적으로 묻는다. 논증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먼저 성경의 역사(확산, 영향, 기적)를 본다. 다음으로 구조(66권의 통일성, 그리스도 중심, 예언과 성취)를 보고, 이어서 가르침(장엄함, 보편성, 정직한 문체, 자기 증언)과 고유한 특성(점진적 계시와 입법의 지혜)을 본다. 마지막으로 인간만 원인으로 삼는 이론이 하나같이 실패했음을 보이고 이렇게 결론짓는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을 개연성이 강하다.

📜 절별 정리

📜 0. 서론 — 성경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기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신적 기원을 말할 때, 사람이 성경을 쓰고 엮었다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저자의 흔적은 성경 전체에 찍혀 있어 지울 수 없다. 다만 성경의 기원이 인간에게만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워필드의 답은 “모든 곳에, 모든 방식으로”다. 기록할 내용과 기록할 사람을 준비하실 때, 자료를 모으고 고르고 쓰는 과정에서, 실제로 받아 적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방식은 섭리적 감독과 조명부터 직접 계시와 영감까지

있는가?” 방법도 밝힌다. 체계적 증명이 아니라 몇 가지 명제를 늘어놓는다. 누구나 인정할 사실에서 출발한다. 연역이 아니라 귀납으로 나아간다. 결론이 덜 날카로울 수는 있다. 그래도 독자의 이성이 모든 단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방법의 장점이다.

1. 신적 기원은 인간 저자를 지우지 않는다
2.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곳에, 모든 방식으로 일하셨다
3. '어떻게'보다 '실제로 관여하셨나'가 먼저다
4. 전제 없이 누구나 아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5. 연역 증명이 아니라 귀납 탐구다
6. 성경은 모든 세계관이 설명해야 할 '사실'이다

> —
> 저자는 이 절에서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 논증 방법을 밝히는 서론이다

“모든 곳에,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 1. 성경의 역사 — 바깥에서 본 성경

워필드는 여섯 단계로 나아간다. ① '성경'이라는 책이 실제로 있고, 그 내용은 정해져 있다. ② 이 책은 문명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법률, 사회 관습, 정치 제도, 선서, 대학과 가정에 스며 있다. 다만 그는 성경에 그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를 실제로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말한다. ③ 이 자리를 얻은 과정이 놀랍다. 성경은 변방 소수 민족의 책이었다. 그런데 무력도 권세도 없이, 조롱과 박해 속에서 온 세상으로 퍼졌다. 인류가 처음부터 붙들어 온 제사 관습이 한 세대 안에 무너진 것이 그 깊이를 보여 준다 (플리니의 보고). “인간적 수단으로 설명되지 않느냐”는 반론에는 그 수단을 보라고 답한다. 배우지 못한 사람 열두 명이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을 전했다. 켈수스와

영향은 순전히 선했다. 반론에는 세 가지로 답한다. 편견 없는 불신자도 이를 인정한다. 성경이 고통이나 범죄의 구실이 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성경을 해롭다 하는 것은 “사랑은 재앙”이라 말하는 것과 같다. 반대자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도덕적 품위도 실은 성경에서 왔다. 그 증거로 성경 이전의 로마 사회와 성경을 잃은 사회(이탈리아 르네상스,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치)를 비교한다. 성경이 남긴 열매로는 병원과 구호 시설, 여성의 지위, 노예제 폐지, 여러 민족의 문자를 든다. ⑤ 이 힘의 원천은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람들의 깊은 확신이다. 이것을 광신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람은 헛된 망상을 위해 죽지 않기 때문이다. ⑥ 이 확신은 영향력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내용의 위엄과, 기적이 따른 외적 정황에서도 나온다. 결론은 이렇다. 성경의 외적 역사는 초자연적 기원과 잘 맞고, 그 기원에 정당한 개연성을 준다.

1. 성경은 실제로 있고, 내용이 정해진 책이다
2. 법·정치·가정에 스민 독보적 영향력을 지녔다
3. 무력 없이 박해 속에서 세상에 퍼졌다
4. 그 영향은 사람을 높이는 선한 힘이었다
5. 망상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다
6. 유일한 영향력은 유일한 기원을 가리킨다

> —
> 저자는 이 절에서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 확산, 박해, 사회 변화 같은 역사적 사실로 논증한다

“인간은 보잘것없는 헛된 망상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하지 않는다.”

📜 2. 성경의 구조 — 66권이 한 책이 되는 이유

보통 큰 영향을 끼친 책은 천재 한 사람이 뚜렷한 목적을 품고 쓴 책이다. 그런 책도 저자의 사대의 문화를 넘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① 성경은

형식이 들어 있다. 겉으로 보면 시간의 바다에서 떠밀려 온 조각들을 묶어 놓은 꾸러미 같다. 히브리어 절반과 헬라어 절반은 서로 긴장 관계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두 부분은 함께 있을 때만 세상을 정복했다. ② 안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통일성이 드러난다. 한 교리가 금실처럼 성경 전체를 꿰뚫고, 각 책은 그 실에 순서대로 꿴 진주 같다. 역사도 끊기지 않는다. 말라기는 복음서를 가리키며 끝나고, 신약은 구약에 소리 없이 맞물린다. 채석장에서 다듬은 돌이 성전 자리에 딱 들어맞는 것과 같다. 1,500년을 살면서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한 사람이 없다면, 남는 답은 초인간적 지성뿐이다. 워필드는 이 논증이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하는 논증과 같은 구조라고 본다. 충분한 원인, 질서, 설계에서 원인을 추론한다는 점에서다. 그래서 한 무신론자가 말한 대로, 성경의 신적 기원과 세계의 신적 기원은 함께 서거나 함께 무너진다(버틀러가 이미 입증). 선택지는 무신론 아니면 기독교다. ③ 성경 전체는 한 인물을 그린다.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에서 시작해 요한계시록의 흰 보좌에 앉으신 심판자로 끝난다. 햄릿 한 인물에도 셰익스피어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사람의 일관된 초상이 서로 소통도 없던 30여 명의 손에서 우연히 나왔다고 믿기는 어렵다. ④ 앞부분의 예언과 뒷부분의 성취가 꾸러미를 한 묶음으로 동여맨다. ⑤ 예언은 그 자체로 신적 기원을 증언한다. 미래를 꿰뚫어 보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마을, 멸시, 죽음의 방식, 십자가 위의 조롱, 피값, 배신자의 최후까지 예고되었다. 유대 민족의 역사와 열방에 대한 예언도 증거가 된다. 예언서를 사건 뒤에 쓴 글로 늦추려는 시도는 증거가 허락하지 않는다. 예언의 성취는 시대마다 새로 일어나는 '살아 있는 기적'이다.

1. 1,500년, 30여 명이 쓴 66권의 모음집이다
2. 겉은 흩어진 조각이고, 속은 하나의 몸이다
3. 1,500년을 감독한 지성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
4. 첫 장부터 끝 장까지 한 인물의 초상이다
5. 예언과 성취가 성경을 하나로 묶는다
6. 예언은 그 자체로 계속되는 기적이다

> **창세기 3:15**
>
> (암시, 저자는 장절을 밝히지 않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초상이 성경 첫머리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20:11-12

(암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자. 같은 초상이 성경 끝까지 이어진다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라기 4:5-6

(암시) 구약이 복음서를 가리키는 이정표처럼 끝난다는 근거

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미가 5:2

(암시) 그리스도가 태어날 마을을 미리 말한 예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시편 22:7-18

(암시) 십자가 위의 고통과 조롱을 세밀하게 예고한 본문

7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9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2]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

스가랴 11:12-13

(암시) 그리스도의 피값을 예고한 본문

[12]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3]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마태복음 27:3-10

(암시) 피값과 배신자의 최후가 성취된 기록

[3]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6]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7]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

누가복음 16:31

(직접 인용) 모세와 예언자(기록된 말씀)를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 예언 성취라는 '계속되는 기적'의 무게를 마무리하는 말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 3. 성경의 가르침 — 내용 자체가 증거다

능력의 기적과 예언의 기적을 사람이 만들 수 없듯이, '교훈의 기적'도 사람이 만들 수 없다. ① 가르침이 장엄하다. 성경은 하나님을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영으로 그린다. 능력, 지혜, 공의, 거룩, 선, 긍휼, 사랑이 모두 무한하다. 수천 년의 다양한 사건 속에서도 이 속성 가운데 하나도 흐려지지 않는다. 인간도 높게 그린다. 하나님의 형상, 책임이 따르는 자유, 사랑에 뿌리를 둔 도덕,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운명,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자리를 말한다. ② 성경은 과학과 조화를 이룬다. 워필드는 과학이 이제야 모세가 3,000년 전에 서 있던 자리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그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전제한 채 말한다. 그래서 깊으면서도 평범한 사람이 읽을 수 있다. ③ 가르침이 보편적이다. 철학자에게도 아이에게도, 부시맨에게도 뉴턴과 패러데이에게도 똑같이 닿는다. 그 진리는 읽는 사람의 양심 속에서 참으로 확인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헤아린 인간 저자는 없다. 그러니 모든 시대를 꿰뚫어 보는 저자가 있어야 한다. 모세나 그 이름을 빌린 익명 저자로는 설명이 안 된다. ④ 문체가 믿음직하다. 가장 놀라운 사건도 차분하고 정직하게 말한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아니까” 믿는다고 말하곤 한다. 그것처럼 작은 인상들이 모여 합리적인 신뢰를 만든다. 그래서 복잡한 논증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정당한 근거로 성경을 믿는다. 기적 이야기는 서술에 녹아 있어 떼어 낼 수 없다. ⑤ 성경은 자기 기원을 하나님께 돌린다. 놀라운 지식을 저자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저자는 도구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대성당을 걷다가 마지막 벽에서 건축가의 서명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1. 성경 밖에서 이런 하나님 개념은 나오지 않았다
2. 인간을 하나님 형상이자 책임 있는 자로 그린다
3. 깊지만 아이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4.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양심에 닿는다
5. 정직하고 차분한 문체가 신뢰를 준다
6.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께 서명을 돌린다

> **창세기 1:26-27**
> (암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인간관의 장엄함'의 근거
>
>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28

(암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책임 있는 대표자라는 인간의 지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1-31

(암시) 과학이 이제야 따라잡았다는 '모세의 자리', 곧 창조 기사

[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디모데후서 3:16 · 베드로후서 1:21

(정리자 보충, 저자는 이 절에서 구절을 들지 않음) 성경이 자기 기원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⑤의 대표 본문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4. 성경의 고유한 특성들 — 점진적 계시와 입법의 지혜

지면이 부족해 워필드는 예 하나만 든다. 가르침이 점진적이라는 점이다. 성경은 바깥 상징으로 나타낸 기본 원리에서 시작해 완전한 체계로 나아간다. 그 체계는 교리로 선포되기 전에 먼저 역사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워필드는 이 점진성이 신적 기원과 '어울린다' 정도가 아니라, 통일성과 함께 보면 신적 기원'으로만'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교조주의자(머릿속 원칙을 현실에 밀어붙이는 사람)가 만든 책이 아니다. 사람 속을 알고 그를 다듬을 줄 아는 통치자가 빚은 책이다. 구약 율법은 실제로 지킬 수 있게 만들어졌다. 집행되지 않는 금지법은 오히려 악습을 보호한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다처제, 이혼, 노예제를 법으로 규제했다. 규제로 억제하고, 억제로 끝내 없애는 길을 택했다(워필드는 미국의 일부다처제 논란을 배경으로 이 말을 한다). 상징적 예배 제도는 민족 전체를 가르친 '몽학선생'이었다. 신약은 세부 조항보다 큰 원칙으로 법을 주어 명확하면서도 보편적이 되었다. 종, 아내, 자녀, 통치자에 관한 규정은 그 시대에 견주어 놀랍게 온유하다. 많은 주제에 대해 일부러 침묵한 것도 지혜였다.

1. 상징에서 시작해 완전한 체계로 나아간다
2. 교리보다 역사가 먼저 진리를 보여 준다
3. 악습을 규제해 줄이고 끝내 없앤다
4. 구약 예식은 백성을 가르친 몽학선생이었다
5. 신약은 조항보다 원칙으로 법을 준다
6. 말하지 않은 것도 지혜였다

> **갈라디아서 3:24**
> (암시, '몽학선생'이라는 표현) 구약 예식이 그리스도께 이끄는 교사 역할을 했다는 근거
>
>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 **출애굽기 21:2-11 · 신명기 24:1-4**
> (정리자 보충) 종과 이혼을 금지하지 않고 '규제'한 구약 입법의 실제 예
>
> **출애굽기 21:2-11** [2]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만일 그가 단신으로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

신명기 24:1-4 [1]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19:8

(정리자 보충)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다는 예수님의 말씀. 점진적 입법을 이해하는 열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서 5:22-6:9 · 로마서 13:1-7

(암시) 아내, 자녀, 종, 통치자에 관한 신약 규정의 온유함

에베소서 5:22-6:9 [22]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 **로마서 13:1-7** [1]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

📜 5. 성경을 설명하는 일의 불가능성 — 실패한 대안들

성경은 지금 이런 성격과 역사를 지닌 채 세상에 있다. 그런데 인간만 원인으로 삼아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수많은 이론이 나왔다. 하지만 스스로 무너지거나 다른 불신자에게 반박당했다. 초자연을 빼고 반세기를 버틴 이론은 하나도 없다. 워필드는 신약의 기적을 자연적으로 설명하려 한 세 흐름을 차례로 검토한다(학파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첫째는 자연 설명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저자들이 기적으로 오해했다는 주장이다. 치유는 약 덕분이고, 살아난 사람은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식이다. 이 설명은 기적만큼 기이한 우연을 연달아 가정해야 해서 무너졌다. 둘째는 신화설이다. 작은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눈덩이처럼 부풀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화가 자랄 토양도 시간도 없었다. 셋째는 위조·정파설이다. 파당 싸움 속에서 책들이 거듭 위조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헌 증거가 이 책들이 아주 이른 시기에 있었음을 보여 주므로 그럴 시간이 없었다. 결론은 이렇다. 하나님 없이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 것이 이성적인 태도다.

1. 인간만 원인인 이론은 반세기를 못 버텼다

4. 위조설은 이른 문헌 증거 앞에서 무너진다
5. 대안이 없으면 계시로 받는 것이 이성적이다

> —
> 저자는 이 절에서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 비평 이론들의 역사적 실패로 논증한다

📜 6. 맺으며 — 네 가지 덧붙임

워필드는 논증의 범위를 스스로 정리한다. 첫째, 그는 '초인간적' 기원과 '신적' 기원을 구분하지 않았다. 둘이 원래 같아서가 아니라, 이 논증 안에서는 사실상 같기 때문이다. 둘째, 성경이 전하는 '신앙 체계'의 신적 기원과 그것을 담은 '책'의 신적 기원도 구분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분리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나눌 필요가 없어서다. 셋째, 성경 안에서 신적 요소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영감의 범위)라는 질문은 다루지 않았다. 이유는 셋이다. 이 질문은 믿음을 세울 때가 아니라 신적 기원을 받아들인 뒤에 나온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 없이도 성경에서 생명을 찾는다. 한 편의 글에서 두 질문을 다 다룰 수 없다. 넷째, 지금까지의 증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아래 생겼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기록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으로 이루어졌을 강한 개연성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은 경외와 사랑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진리다.

1. 이 글에서 초인간적 기원은 곧 신적 기원이다
2. 교리의 기원과 책의 기원을 함께 다뤘다
3. 영감의 범위는 믿음 이후의 질문이다
4. 소박한 성도는 범위 논쟁 없이도 생명을 찾는다
5. 증거는 단어까지 미치는 영감을 가리킨다

> —
> 저자는 이 절에서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 논증의 범위와 결론을 정리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신적 기원
성경이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뜻이다.

섭리적 감독
하나님이 역사와 사람을 보이지 않게 이끌어 성경이 나오게 하신 일이다.

조명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밝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계시
하나님이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직접 알려 주시는 일이다.

영감
성경 저자가 기록할 때 성령이 감독하셔서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이다.

축자영감
영감이 생각뿐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 글의 마지막 결론이 여기에 닿는다.

귀납 / 연역
귀납은 여러 사실을 모아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이다. 연역은 정해진 원리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이다.

설계 논증
정교한 질서를 보고 그것을 설계한 지성이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점진적 계시
하나님이 진리를 한꺼번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단계적으로 밝혀 오셨다는 뜻이다.

옛날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던 가정교사를 말한다.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께 이끄는 역할을 했다는 뜻으로 이 말을 쓴다(갈라디아서 3:24).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의 신적 기원은 인간 저자를 지우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곳에서 모든 방식으로 일하셨다.
- 역사(확산과 열매), 구조(통일성, 그리스도 중심, 예언), 가르침(장엄함, 보편성, 정직함)이 각각 초인간적 원인을 가리킨다.
- 인간만 원인으로 삼는 설명(오해설, 신화설, 위조설)은 모두 실패했다.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경을 계시로 받는 것이 이성적이다.
- 이 증거들은 단순한 섭리를 넘어 단어까지 미치는 영감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경은 경외와 사랑으로 신뢰할 진리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4편 · 기적·전통·이성은 어디까지 증거인가 · 변증의 자리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